





# 단숨에의 기상, 비상한 건설속도로 눈부신 새 거리의 웅자를 펼쳐간다

## 미래 과학자거리 건설장에서

###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열어놓은 승리의 돌파구

####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에서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진 시기에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울리는 거창한 창조적 희생의 지름은 나라에 새로운 희망과 광만을 더해주고있다.

불과 수십일만에 선군조선의 푸른 하늘을 향해 단숨에 솟아오른 탑식과 묶음식, 류선형의 초고층살림집골조들...

그야말로 기적적이다. 바라볼수록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사회주의문명을 부르는 대고조전역에서 우리는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전례에 선 백두산혁명강군의 달탄 기상과 용맹을 본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단개 오늘날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장에서 착공의 첫발을 박은것은 지난 4월이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달동안에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장병들이 기록한 공사실적은 참으로 경이적이다.

착공후 10여일만에 하부망공사 결속.

층수는 살림집골조 60여 일만에 형성.

돌이켜보면 부대장병들이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달려온 수십일간은 격동하는 시대의 부름에 어떻게 화답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긍지높은 나날이었다.

건설초기 부대장병들의 가슴속에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긍지가 차고넘치였다. 모두의 양양된 열의속에 하루망공사와 아름다운 살림집기초공사가 단숨에 추진되었다.

런이 팔조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부대적인 공사실적이 점점 떨어졌던것이다.

더딘 공사속도를 놓고 하루동안만도 여러차례의 긴급회의가 있었다. 회의회과정에 올린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당에서 중시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은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오직 무조건적인 완공이 전제이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 않은 지휘관들이 하나의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미립식공법을 적용하여 골조공사속도를 부쩍 높이는 안이었다. 목재회틀공법으로부터 방향전환을 하는 새 안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순간의 담보도 허용하지 않고 새공을 도약하기 위한 목표는 이렇게 정해졌다.

그후 온 부대의 관심속에 단 3일만에 내부벽으로 제작된 250여개의 자기봉과 수심1m의 철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죽시에 돌격전이 벌어졌다. 부대아래 정장순, 심세홍소속부대아래 정장순, 심세홍소속부대아래 정장순, 심세홍소속부대아래 정장순... 시작하였다.

대건설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려는 부대장병들의 혁명적기세는 공세적으로 벌어진 화선전투에 의해 더욱 고조되었다.

살림집골조가 기를 추기던 나날에 공사지휘와 화선전투에 나같이 리용할수 있게 다목적확성기를 만들어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한결 높여준다는 계획이 일군들과 높아지는 층수를 따라

며칠후 힘찬 돌음을 올리는 압승기에 의해 혼합물은 눈부리도록 빠른속도로 축적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대건설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려는 부대장병들의 혁명적기세는 공세적으로 벌어진 화선전투에 의해 더욱 고조되었다.

살림집골조가 기를 추기던 나날에 공사지휘와 화선전투에 나같이 리용할수 있게 다목적확성기를 만들어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한결 높여준다는 계획이 일군들과 높아지는 층수를 따라

가며 화선전투전투로 전투원들의 심장에 격동의 불을 달아준 기동애선진부대원들... 립집골조를 여러층이나 앞서게 한 미립식공법을 적용한 결과 부대가 맡은 현대적인 살림집골조공사는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계속되었다.

말은 살림집건설을 최대한기에 완공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려는 부대장병들의 영웅적의욕은 오늘도 거창한 수도건설사업의 한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영철

###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울리는 단숨에 솟아오른 탑식과 묶음식, 류선형의 초고층살림집골조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에서 찾아 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할것에 하반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부대장병들이 건물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를 시작할 때였다.

살림집 한층을 형성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공이 들었다. 류선형에 가까운 건물골조시공이 복잡한 한층에 드는 혼합물량은 거의 300m에 달하였다.

아름다운 공사과제에 맞게 부대적인 치밀한 전투계획이 세워졌다. 그후 현장은 불도거나 마당 뛰어넘었다. 기공기와 수직권양기, 혼합물양송기들이 가동하는 속에 한층을 헤쳐나가는가, 격동하는 시간은 극히 짧았다. 하지만 부대장병들은 그쯤한 공사속도에 만족하

지 않았다.

혼합물공급량이 공사속도와 할수 없었다. 하기에 박소철소속부대를 비롯한 부대장병들이 불을 달아내는 열정을 토로했다. 질풍을 리용해서라도 혼합물 운반량을 높여주는것이였다.

지휘관들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로 하였다. 며칠후 수직권양기를 타고 오르는 혼합물 바가지의 용량이 달라졌다. 서로의 지혜를 합쳐 바가지의 용량을 늘일만 한 기술적담보를 마련했었다. 결과 단위시간에 끌어올리는 혼합물량은 2배로 늘어났다.

부대장병들의 양양된 열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때 부대지휘관인 리창철동무가 발기한 혁신안은 골조공사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또 하나의 계기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대형회틀에는 철관을 리용하는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곳 지휘관들은 여러차례의 내수합판으로 한계 벽면적과 맞먹는 대형회틀을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층수가 계속 높아지는 건물골조에서 벽체회틀을 꼭두쇠식으로 조립하는 일은 사실 많은 공이 드는 힘든 작업이였다. 상상해보니 여기서도 시간에비겨나올수 없었다. 지난 천리마대고조시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리용두대치기압연방법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지 않았는가, 격동하는 시간은 그때와 다름없는 천리마기수들을 부르조이다. 이것이 부대장병들의 의지였기에 건설공사에서도 리용두대치기압연법을 받아들여 이기기로 하였었다. 기술공정상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결된 후 10m가 되는 대형회틀이 땅 위에서 제작되었다.

눈부리도록 빠른속도에서 꼭두쇠식으로 회틀을 조립하던 어려운 연공작업대신에 지상확성기로 제작된 대형회틀을 기중기로 들어올려 조립하니 연공작업에 들던 많은 로력과 품은 적지 않게 줄어들었다. 부대장병들은 런이 앞선 경험을 살려 류선형에 가까운 건물의 특성에 맞게 꼭두쇠로 된 대형회틀도 통째로 만들어 리용되었다. 골조공사속도는 종전보다 3-4배로 높아졌다.

초고층건물건설경험이 부족한 부대장병들이 불과 수십일만에 현대적인 살림집골조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위훈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한층분의 혼합물을 한시간만에 올린 압승기에 고장이 생겼을 때 열흘은 걸려야 해결될 부분들을 자체로 3일만에 제작하여 건설기계의 돌음을 높이 올리게 한 강명철소속부대와 대형회틀제작시간을 줄여 공사시간을 앞당긴 조영철, 송영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1950년대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혁신의 기술들에 대한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수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줄 희한한 새 거리는 그렇듯 최단기간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백열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철도성려단에서

것은 선군시대 철도성려단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런 비상한 각오밑에 건설기계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관들의 발걸음은 평탄한 길로만 걸어갈수 없었다. 한꺼번에 막도를 처리할 장소도 개발하게 정해졌다. 철도성려단으로 어느 한 아래단위의 부지에 막도를 날라야 되기로 하였던것이다. 공사추진속을 위한 기근고령도 기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태풍도 활발했다. 며칠사이 배럴전의 도마가 마련된 건설장에서 방대한 토량처리에도 동원된 중기계들의 돌음은 한차례 울려 퍼졌다.

기초굴착용 준비용공사단위에 이르렀을 때 성려단 여러 단위들이 달려나온 지원력향에 의해 성려는 눈이 띄게 확대되었다. 소기의 전투목표가 수행되고 건설장적인 1단계 사회주의경쟁에서 련이든 우수한 경기는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사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결과단위에서는 지난 태양절까지 선규모의 방사형물공사에 쓸 1만여장의 블로크까지도 단숨에 결속하였다.

공사과정에 필요한 자재들이 연 부족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전투원들간, 종대, 대대간 사회주의경쟁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고리로 되었다.

이곳 지휘관, 전투원들이 발휘한 혁신적인 투쟁기세는 그뿐이 아니다.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선진에서 건설장까지 전시수송을 보장하는 본대로 많은 목적을 20여일만에 운반하여 공사의 순결을 담보하고 장마에도 끄떡없이 공사를 추진할수 있게 해 놓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맡은 공사과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수족한 조건에서 당에서 정해진 리듬은 지금도 실적이 높은 단위로 온 건설장에 도마를 내고있다.

본사기자

이것은 바로 그레서였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작설비를 운반할 리운을 밟아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갈 할리없는 방법을 탐구했다. 차례대로 설비를 수직으로 싣고 내려는 경우 자체가 도로의 차선들과 철다리 등을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동차에 설비를 기울여지게 싣고 운반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실 그것은 보통의 단련과 배짱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전투였다. 리창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건진고리에 바줄을 매고 손과 어깨로 설비를 받쳐며 수십리구간을 힘겹게 통과해 나갔다. 혼합물공장은 이렇게 되어 단 하루만에 건설장가이에 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후 부대에서는 수송시간과 혼합물수송차량의 대수를 종전의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공사의 마감단계에 이르러 립집단위에서 여러층이나 앞서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냈다.

건설장가이에 통째로 옮겨진 혼합물공장,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리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결사판결해가는 당의 사상판결, 당정책을위하는 기수들이선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엿볼수 있다.

리영민

### 대동강반에 옮겨진 혼합물공장

#### 조선인민군 전용범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나 명령과 같은것이 없다면 우리는 리용두대치기압연방법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지 않았는가, 격동하는 시간은 그때와 다름없는 천리마기수들을 부르조이다. 이것이 부대장병들의 의지였기에 건설공사에서도 리용두대치기압연법을 받아들여 이기기로 하였었다. 기술공정상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결된 후 10m가 되는 대형회틀이 땅 위에서 제작되었다.

눈부리도록 빠른속도에서 꼭두쇠식으로 회틀을 조립하던 어려운 연공작업대신에 지상확성기로 제작된 대형회틀을 기중기로 들어올려 조립하니 연공작업에 들던 많은 로력과 품은 적지 않게 줄어들었다. 부대장병들은 런이 앞선 경험을 살려 류선형에 가까운 건물의 특성에 맞게 꼭두쇠로 된 대형회틀도 통째로 만들어 리용되었다. 골조공사속도는 종전보다 3-4배로 높아졌다.

초고층건물건설경험이 부족한 부대장병들이 불과 수십일만에 현대적인 살림집골조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위훈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한층분의 혼합물을 한시간만에 올린 압승기에 고장이 생겼을 때 열흘은 걸려야 해결될 부분들을 자체로 3일만에 제작하여 건설기계의 돌음을 높이 올리게 한 강명철소속부대와 대형회틀제작시간을 줄여 공사시간을 앞당긴 조영철, 송영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1950년대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혁신의 기술들에 대한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수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줄 희한한 새 거리는 그렇듯 최단기간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 위훈을 새겨가는 혁신자들

조선인민군 전용범소속부대 사관 강정수동무는 진동다지기 판리를 주안하게 하여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고있다. 그는 오래된 건설장에도 세겨쳐임이 두터운 그가동용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 사관 조항삼동무는 말은 작지만 공세로써 앞서서 일을 양보하지 않는 소문난 이악영이다. 그는 혁명적인 량면에 넘쳐있는 노레선동으로 공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구본대의 사랑을 받고있다.

철도성려단 3대대 1중대대원 함경운동무는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에 참가한 첫날부터 만가동하고있는 남다른 혁신자이다. 그는 당세포에서로서 힘있는 선동사업과 이신작적으로 전투원들을 불러일으켜 완공의 날을 앞당길 열의로 달려오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이런 조건에서 한층을 시공하는 과정에 적용된 2단계조립방법으로는 공사기일을 제 날자에 보장할수 없다는것이 부대지휘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지휘관들은 앞선 단위의 경험들을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자던 콩크리트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혼합물을 배제해 떠나려워 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우선 혼합물운반차량의 대수가 적었다. 혼합물공장에 현장과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렇다고 주어진 조건만 따진다면 단번에 한층씩 조립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내릴수 없었다.

부대지휘관들은 진지한 론의 끝에 혼합물공장을 통째로 대동강기수의 팔재장으로 옮겨와 결심을 하였다. 혼합물생산설비를 기존의 방법으로 해체하고 날라다 조립할때 보름이라는 기일이 걸려야 했다. 시간을 다투며 살림집골조들이 솟아오르는 건설장에서 보름이라는 기일을 놓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혼합물공장을 대동강기수에서 옮겨와서는 지휘관들의 발기는 공사를 제기일에 보장하는 목적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공장 설비를 하나하나 해체할것이 아니라 통째로 실어나를 목표가 세워



강정수동무, 조항삼동무, 조항삼동무, 함경운동무

### 만선의 배고통소리는 어떻게 울리는가

#### 문덕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선들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리관단 전행단위만 없으면 누구나 분발하면 다 전행단위가 될수 있다는 편집을 가지고 배수리기일을 줄이기 위한 결의목표실현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게 되었다.

지나해 모든 어선들이 배수리기일을 한달이나 단축하고 종전보다 한달 앞당겨 첫 출어를 보장하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을 때를 통해서도 본보기단위를 옮겨 선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대 단위로 특징이 있다. 그런것만큼 정치사업을 고정적화 된 틀에 맞추어서는 안된다. 백번 정치사업을 하면 백번 다 새물결!

이것이 초급당위원회가 대중발동을 정치사업에 고정적화 하는 열의는 4월 만능을 견조할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배수리

어로는 두뇌전이고 기술전이다

과학기초보급에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들을 갖추어주고 기술성과파도를 전시하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을 물고기들에게 과학화하는데서 그치는 문제가 일관시되고 그 인식정형을 문과파 시합의 방법으로 총화하고 넘어가는 체계를 세운것은 어로공들과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인 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고기배 척량 물고기생산량을 2배로 끌어올렸으며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울리게 하였다. 이런 뛰어난 투쟁과정에 로명영웅으로 수백명의 지배인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이로운을 두는것, 기술적으로 전환할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기에 되었다.

이것은 배고통소리는 어로공들에게 상상시켰다. 그날 선장은 안해에서 편지를 받았다. 지배인과 초급당부서가 예로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속속들이 풀이해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돌려보면서 어로공들은 그 글을 적었다. 혈육의 정을 물처럼 흘리는 어로공들의 인기가 의의를 귀중히 여기는 바다사람들의 심정을 울렸던것이다.

다른 실례가 있다. 지나해 어장에 나간 초급당부서 박명일동무가 안장강선 1151호에 출했다. 그를 에워싸고 어로공들이 고맙다고 한마디씩 했다. 사연이 있었다.

그 며칠전 어로공들의 집에 가정방문을 갔던 초급당일군은 선장의 집에 기쁜 일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장은 물고기잡이전투로는 사업소가 바쁜데 절대로 바다를 뜬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시초

# 미래는 눈부시다 과학의 섬이여!

## 대동강은 눈부신대로 일어난다

낮에도 밤에도 격정의 불이 흐르는 대동강변에 팔황한 우주로 이 조선을 떠돌릴 거대한 발사대인양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 과학기술전당이 솟아오른다

약동하는 내 조국땅에 찬란한 태양을 소리쳐부르는 그 웅장한 모습 바라만 보아도 힘이 솟는다 그 황홀한 자태 생각만 해도 눈이 부시다

높뛰는 가슴에 들려오누나 불어치는 강바람에 외투자락 날리시며

우리 원수님 적으시던 그날의 발자국소리 이 축사에서 과학기술강국의 해돋이를 떠올릴 그이의 역설 의미가 강반을 흔들고 온 강산에 회성했나

위대한 심장에서 지퍼진 애국의 불이 대격전의 불길로 타번지는 축성전역

## 병사의 시간

불이 달린 화약처럼 총기를 떠난 총알처럼 그렇게 흐른다 병사의 시간

철근! 휘둘! 물뿜! 축성전역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포탄을 찾은 사수의 웨일인듯

무심히 들을수 없다 시간도 당기면 당겨진다는 애런병사의 말 하루를 결코 24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부대장의 이야기

박현철 그의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안고 여기서 태동하고있어라 세계가 부러워할 최상의 문명과 거대한 발사대인양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안고 불의 폭풍을 내뿜으며 대건설의 열풍으로 숨쉬는 땅 낮과 밤 따로없이 타오르는 기적과 전변의 불길은 평양정신으로 강토에 빛발쳐라

빛나는 우리의 이 조선을 무궁번영으로 이끄시는 원수님 그이의 이상 조국의 황홀한 꿈을 미겨안은 과학기술전당이여

너는 지구를 버찌 들어올리며 우주로 나래치는 조국의 기상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기념비

오, 천년을 흐르고 만년을 흘러온 대동강은 문명강국의 등대 과학기술전당의 용자를 물결위에 싣고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며 눈부신 태양으로 굽어쳐가구나

이렇게 두주먹에 시간을 거머쥔 열혈의 심장들이 타임볼을 열구는 한겨울에도 온 건설장을 박막으로 덮고 억년기초를 팡팡 다지었나니

보라! 불을 뿜는 증기의 탄머인양 철근을 메고 골재를 지고 높은 층계를 치달리는 병사들 저기 만장우에선

관공의 그날을 그려주며 수억만의 용접봉꽃이 휘뿌려진다

질풍처럼 내닫는 병사들의 걸음걸음에

결사관철의 분분초초가 흐르는 여기 축성전역은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태어나는 위대한 창조역의 땅!

선군의 천마리를 폭풍쳐가시는 원수님의 승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춘 병사의 시간 초음속비행기속도로 전진하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총돌력의 태업을 합쳐쳐 잡고 최고사령관동지 정해주신 시간에 단 하루 한초의 드림도 없이 가닿을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주었거니

무쇠팔을 휘두르는 기동기는 격정의 우뢰를 터친 용사들 전화의 영웅포인들...

육탄으로 돌격로를 열어가는 병사들 땅에 짓고 불탈에 젖은 가슴마다엔 소중히 간직되어있어라 무수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긍지로운 추억들이...

그이의 부름을 산악같은 믿음으로 안고 물결같은 우뢰를 터친 용사들 원수님 아시는 병사들이라는 남다른 자랑과 영예가 일당백공격속도로 내닫는 자욱 자욱

김정전시대를 누리에 펼쳐가는 원수님의 군위병들

오, 승리의 보고를 안고 쟁-쟁-발걸음놀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앞으로 행진해갈

영광의 그날이 보인다 10월의 광장을 향하여 군위병들 앞으로!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에서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수수한 모습들이건만 머리가 숙여지누나

축성에서 만난 이 너민들아

창공의 첫 발과를 울린 그날부터 한가정의 트랙을 대건설장으로 이어놓은 너민들 아침노을속에 붉은기를 앞세우고

다리를 메우며 들어서는 어머니들의

이 시간속에 태어나리라 인민의 과학기술전당도 태동하는 이 땅의 모든 미래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총돌력의 태업을 합쳐쳐 잡고 최고사령관동지 정해주신 시간에 단 하루 한초의 드림도 없이 가닿을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주었거니

무쇠팔을 휘두르는 기동기는 격정의 우뢰를 터친 용사들 전화의 영웅포인들...

육탄으로 돌격로를 열어가는 병사들 땅에 짓고 불탈에 젖은 가슴마다엔 소중히 간직되어있어라 무수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긍지로운 추억들이...

그이의 부름을 산악같은 믿음으로 안고 물결같은 우뢰를 터친 용사들 원수님 아시는 병사들이라는 남다른 자랑과 영예가 일당백공격속도로 내닫는 자욱 자욱

김정전시대를 누리에 펼쳐가는 원수님의 군위병들

오, 승리의 보고를 안고 쟁-쟁-발걸음놀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앞으로 행진해갈

영광의 그날이 보인다 10월의 광장을 향하여 군위병들 앞으로!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에서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수수한 모습들이건만 머리가 숙여지누나

축성에서 만난 이 너민들아

창공의 첫 발과를 울린 그날부터 한가정의 트랙을 대건설장으로 이어놓은 너민들 아침노을속에 붉은기를 앞세우고

다리를 메우며 들어서는 어머니들의

고지의 탄약처럼 섬겨온 보배로운 그 손들을

그 손으로 떠주는 한모금 물은 고향강물처럼 병사들의 가슴에 흘러들고

가정의 추녀아래 따로 둔 행복이 흘러라 구슬땀도 같이 흘러들

원수님 가꾸어가는 조국의 태양에 맑고 슬결도 사랑도

좋은 밤이다 해빛누신 대학의 교정길을 지녀이던 건설장에 이어놓고 깨끗한 구슬땀을 마음껏 쏟아내는

반짝이는 저 밤들은 청춘의 지평에 녹는 열정이 불꽃이 되어 하늘에 휘뿌려진것인가

그림자 청춘의 힘 그 힘이 내뿜는 억센 손으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은빛추녀 높이 들고 일떠서는 저 점이 청춘-우리의 집이라고 유쾌히 하는 그 말

그 이름만 불러봐도 이 심장은 환희로 벅차오른다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간직한 평양의 너민들

바라건 없애라 그 어떤 명에도 훈장도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아, 그날 꿈같은 그날 조국여 이 너민들에게

과학자, 발명가가 되기 전에 애국의 구슬땀 보석처럼 바칠줄 아는 이들이 바로

그렇구나 과학을 미래에 온 우주를 통틀어 안겨준 조국을 위해

그림자 청춘의 힘 그 힘이 내뿜는 억센 손으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은빛추녀 높이 들고 일떠서는 저 점이 청춘-우리의 집이라고 유쾌히 하는 그 말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내 조국의 자랑 과학의 섬이여 문명의 빛발을 한몸에 휘감았구나

우리의 수령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상조선의 대로를 열어주시 이

한평생 래일위한 오늘에 사시며 우리 장군님 다져주시

원대한 포부가 솟출우치는 대전당

어제 여기서 두뇌적인 기술들이 인류가 걸어온 사색과 탐구의 진

그림자 청춘의 힘 그 힘이 내뿜는 억센 손으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은빛추녀 높이 들고 일떠서는 저 점이 청춘-우리의 집이라고 유쾌히 하는 그 말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추구나 기운찬 삼질로 불이 번쩍 맞들이로

##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아버지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대표 기자와 회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대표 기자와 회견

회견에서 그는 해마다 7월이 오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아버지를 그리는 추모의 물결이 경향각지에 굽어치는 이 시각 남녘의 전위투사들

은 거머가 높이 칭송하듯이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조국

통일을 위한 만년태를 마련하여 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헌신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장수 수십년 세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

후대들에게 하나된 삼천리강토를 물려주시기 위해 기술이신

우시며 주석님께서는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

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이.는 겨레는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후손대대를 두고

절세위대한정치를 마련해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투쟁의 토대가 있고

우시며 주석님께서는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 만경대 방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후일 응옥 천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인민회의대표단이 11일 귀국하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전을 찍은 다음

비엣 흥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

우러려 삼가 인사를 드렸다

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귀국에 앞서 월남인민회의 부의장은 우리 나라 방문과

비엣 흥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

귀국에 앞서 월남인민회의 부의장은 우리 나라 방문과

비엣 흥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한

###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 진행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이 11일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관람에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과 본관 인터뷰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 대사관성원

인민무력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인민무력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연회에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판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중창과 경음악

《애국대 혁명당 비서리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 원수님과 김정일대원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끝없이

다음으로 쟁누안 씨이냐트 국방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대표단이 조선에서의 체류기간 형태적이며 동지적인 친선의 정이 넘치는 뜨거운 환대를

그는 오늘 라오스와 조선의 무력기관들이 친선적이며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두 나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선대수령들의 로고가 깃들어있고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라오스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공훈국가합창단은 세계명곡들도 훌륭히 형성하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의 명의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